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

한상봉**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봉려관과 법정사 항일유적지
 - 1.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 고찰
 - 2. 법정사 항일유적지의 규모
- III. 법정사 항일운동과 화전민의 역할
 - 1. 법정사 입지 선정에 대한 고찰
 - 2.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화전민
- IV. 나오는 말

* 본 연구는 2022년 5월 21일 사)봉려관불교문화원이 주최한 학술세미나 『근대제주 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Ⅱ』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주향토사학가.

© 『大覺思想』 제38집 (2022년 12월), pp.187-234.

한글요약

법정사의 위치와 관련 방동화 스님의 아들 방진주의 증언에 의해 알려진 법정사 터에 대해 최근 새로운 주장을 하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구용판결문』에 등장하는 항일운동 진출로 일원의 화전민 터를 확인함으로써 항일운동 발상지의 위치에 대한 추가적 자료를 제시하고,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보이는 법정사 주변 화전민들의 참여 및 이들 화전민들 중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손과 지역민을 만나 면담과 가계도를 통해 화전 터 위치를 확인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는 지형도에 보이는 길이 항일운동 진출로이며 화전민 집터와 연결됐음도 확인했다. 법정사와 관련한 증언 채록과정에 안봉려관과 백인화 보살과의 관계를 통해 법정사 터가 일제 경찰에 의해 불탄 후 일제강점기에도 백인화 보살에 의해 사찰 기능을 하고 있다 4·3사건으로 폐찰 됐음도 확인됐다.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가 1954년 이후 1964년도 사이에 창건됨이 새롭게 나타나 이를 정리했다.

주제어

법정사, 법정사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봉려관, 백인화

I. 들어가는 말

제주불교 최초 정착연대는 불분명하다. 법화사지, 존자암지의 발굴, 연구가 진행되면서 제주불교의 최초 전래 연대 추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금 언급되는 제주불교 시작은 『고려사(高麗史)』기록이나 발굴 결과물에 의거해 몽골 침입 시기 이전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하원동 법화사(法華寺)는 제주불교 최초 사찰로 언급된다.¹⁾ 혜일(慧日) 스님의 시편에 근거하면 고려 말에도 불교 활동이 지속됐던 것으로 보인다.²⁾

조선시대에 억불승유 정책이 강화됐고, 조선후기 이형상(李衡祥, 1702~1702 재임)이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시기, 몇 곳 사찰만을 남기고 불에 타는 모습이 『남환박물(南宦博物)』³⁾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대대적 억불정책은 제주불교 암흑기로 이어졌고, 봉령관이 관음사를 최초 창건하고 법정사를 세우면서 비로소 제주불교는 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발표된⁵⁾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동 세력, 성격, 의의

-
- 1) 당나라 무제년(武帝年) 회창년간(會昌年間) 주조된 동전(銅錢) 출토. 대포동 해안가 포구명이 당포(唐浦)라 구전되는 것을 인용, 회창년간 이전을 법정사 창건 시기로 보려고 했지만 증거부 족으로 12세기 이전에 완성된 사찰로 봄. 강창화, 「濟州法華寺址의 考古學的研究」, 『제주도사 연구』 9, 제주도사연구회, 2000, p.10.
 - 2) 존자암을 비롯한 월계사, 수정사, 묘련사, 문수암, 해륜사, 만수사, 강림사, 보문사, 서천암, 소림사, 관음사(조천포구 소재)에 대한 사찰 기록 중 묘련사, 서천암, 보문사, 존자암과 관련한 기록에 혜일스님의 글이 더해졌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 38권, 1970, p.36.
 - 3) “私家禱神之物 路傍叢林之處 巫覡輩神衣鐵 一併燒燼 甚至於掘木根毀佛像 今無一物.” 이형상, 『南宦博物(남환박물)』, 제주민속사자연박물관역편, 2022, p.62 재인용.
 - 4) 보물 제652-6호이다. 이형상 목사가 순력, 현장 방문 시 광경을 화공(畫工)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그림으로 남기게 한다. 巾布拜恩(건포배은)에 신당(神堂)이 불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와 별개로 법정사 항일유적지와⁶⁾ 관련, 기존 연구에서 언급이 없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⁷⁾ 제주지형도, 법정사 항일유적지 인근 화전민 후손들에 대한 채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정사 항일유적지 인근 화전민들이 직접 항일운동에 참여했음과 1948년까지도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백인화 보살에 의해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고,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가 법정사 항일유적지 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 화전민 거주지를 조사하며 후손 구술을 채록하던 중, 법정사 항일유적지 터에 대한 1948년 항공사진에 호기심을 가지며 시작되었다.

II. 봉려관과 법정사항일유적지

- 5)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2006, 석사학위논문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불교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pp.39-85.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pp.87-120.
- 6)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는 ‘법정이내’의 서쪽 위로, 봉려관이 창건한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법정이내’ 동쪽 터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후 언급되는 ‘법정사항일유적지’는 ‘법정사잔존유구’ 터를 지칭하고, 현존 사찰 기능을 하는 법정사는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 7) 오창명, 『일제강점기 제주지명 문화사전』, 한그루, 2020, pp.646-647,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1911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을 측량하고, 1915~1919년 사이에 1:50,000 지형도 722매를 발행하였다. … 이 지도의 컬러판 1종은 우리나라 종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 다른 1종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 『朝鮮五萬分一地形圖』의 제주도 부분은 1918년에 발행되었는데 … 모두 11매로 구성된다.” 하지만, 1/50,000 지형도 일부에서 부정확한 지명과 미표시 지형이 발견돼 참고 시 주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라 칭한다.

봉려관(1865~1938)은 제주 화북리에서 출생 1907년 해남 대흥사에서 승려가 된다. 1909년 근대제주불교 최초 사찰 한라산 관음사를 창건한⁸⁾ 개산조이다. 이은상 『탐라기행 한라산』 ‘蓬廬觀의 觀音寺’는 이렇게 기술한다.

이 觀音寺는 봉려관이라는 比丘尼의 창건인데 그는 일즉 불교의 篤信者 이었다. 俗性은 안씨로 본 제주인이더니 정미구월에 출가의 뜻을 품고 해남대흥사 晴峰和尚에게 나아가 薙髮受戒하고 명년정월에 돌아와 불법을 선포하였으나 … 龍華寺의 佛像과 各幀畫等を 陪來하였으므로 반가이 얻어 奉安하여 명년구월에 法井庵이란 것을 創建하였다.⁹⁾

1907년 비구 청봉화상을 계사로, 비구니 유장을 은사로 승려가 되었고, 1911년 법정사를 창건한다. 혜달은 봉려관이 법정사를 창건하게 된 연유를 이렇게 말한다.

창건을 대흥사에 보고하러 간 것으로 사료되는 봉려관은 마침 심적암에서 발생했던 항일 의병 참사를 친히 목격한 것이 확실하다. 이때 받아들인 봉려관의 항일의지가 봉려관으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대흥사에 군자금을 전달하게 하였고, 대흥사에서 벌어진 이때의 비참한 죽음 광경 때문에 봉려관이 당시 지리상 인가와 동떨어진, 외떨어진 장소를 법정사 창건지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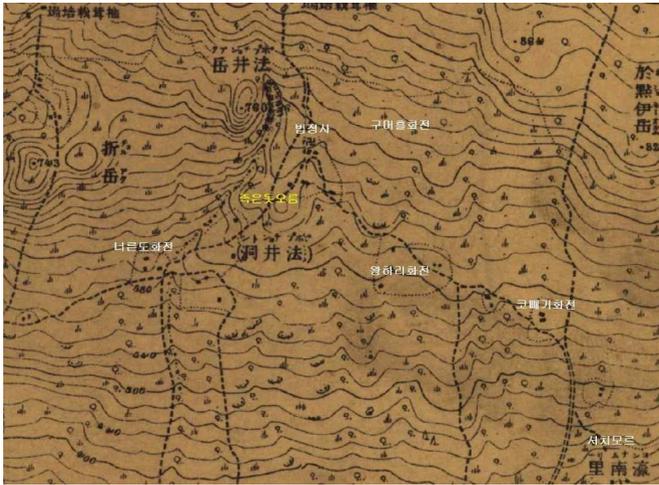
봉려관이 법정사를 창건한 연유는,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大興寺)

8) 오등동 18번지에 살았던 ‘민밭’ 목장화전민 후손 고창화는 고조부 시절 현 관음사 터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100여 마리의 우마를 키우며 땅을 소유하고 있던 중 봉려관이 현 관음사 터의 매입을 요청하자 고조부께선 처음에 거절했으나 다시 찾아 온 봉려관과 매매를 했다 한다. 매매는 땅과 소(말)를 바꾸는 형태로 진행됐었다 한다. (고창화, 2022년 12월 03일 구술)

9) 이은상, 『耽羅紀行 漢拏山』, 조선일보출판부, 1937, pp.153-157.

10) 혜달, 『봉려관』, 조계종출판사, 2021, p.224.

심적암(深寂菴)에서 발생한 항일 의병이 참상 당한 그 광경을 목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법정사 창건 시기는 의병 활동이 극렬했던 활동기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기다.¹¹⁾ 법정사 항일운동이 봉기한 1918년 제작된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중 제주지형도를 통해 도순동과 하원동 산간 지역 화전민들의 삶과 활동을 살펴봤다.



<그림 1>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 중 법정사 주변 부분 편집(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1>에서 만(卍)자 표기된 곳은 ‘법정이내’¹²⁾ 동쪽이며, 법정동(法井洞)이라 표기된 주변에는 수십 채의 화전민 집들이 있다. 이 화전

11) 1차 을미의병(1895), 2차 을사의병(1905), 3차 정미의병(1907)이 있었다. 이중 정미의병 활동은 고종(高宗) 퇴위와 군대해산과 관련해 발생한다. 이원규, 「韓末 抗日義兵에 關한 一考察 : 丁未以後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1984, 석사학위논문, pp.7-21.

12) 지역주민 김용관의 구술에 의거하면, 법정사 항일유적지 길을 흐르는 하천으로 국립담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를 포함한 위쪽을 ‘법정이내’, 국립담 아래쪽 도순동 마을 공동목장 주변을 ‘살탄내’라 불렀다. 고지천은 도순동 ‘고지세’ 옛 마을 이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민 집터를 연결하는 길이 점선으로 표시돼 사람들이 왕래하던 통행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형도 자료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억하는 화전 터는, 법정사 항일 유적지에서 서쪽으로 ‘너른도’ 화전, 동쪽으로 ‘구머흘’ 화전, 남동 방향으로 ‘만테집터’와 ‘왕하리’, ‘코빠기’ 화전민 거주지, 멀리는 영남동이라 불리는 ‘서치모르’와 ‘판판’ 화전 터가 있다. 이는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외딴곳이 아닌 화전민 거주지와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 화전민 거주지는 물을 구할 수 있고 산림과 들판이 가까워 숲 굽기 또는, 목축 활동 여건이 좋으며, 해안마을과 문물(文物)교류가 가능한 위치에 해당한다. 나무와 숲은 불을 피워 밥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하원동, 도순동, 그리고 그보다 아랫마을에서 숲을 구하려면 산간화전민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상호의존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목축의 경우, 해안마을의 위탁한 소를 키워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없이 상호 의존관계로 발전한다.¹³⁾

불려관이 지금의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법정사를 창건한 것도 이런 인적, 물적 지원이 가능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닌가 유추해 본다.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 화전민들의 생활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1.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 고찰

13) (1) 봉성리에선 산간 솔도마을에 소를 올려, 한 달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보리 몇 말을 주고 소를 위탁했다.(양상철, 2021년 6월 12일 구술)

(2) 솔도마을 양봉수의 구술에 의거하면, ‘한데비케’에서 숲을 구워 해안 마을에서 사러 온 이들에게 팔았으며, 한림장에 가 팔기도 했다. 한림 전분 공장도 처음에는 숲으로 불을 피웠다. 도벌목 역시 ‘한데비케’에서 구해 등짐으로 옮겼다. 위탁소는 솔도마을 주변에서 키우며 지슬, 콩, 팥을 재배했고 특히, 지슬(감자)이 잘됐다. 솥비줄은 ‘한데비케’ 주변에서 구해 두면 해안마을 사람들이 자주 올라와 사갔다.(양봉수, 2018년 8월 25일 구술)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법정사를 검색하면,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 위치가 안내된다.¹⁴⁾ 반면,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는 ‘법정이내’ 동쪽 법정사 항일유적지를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순마을지』 편집자의 본론에서는 1918년 항일운동 여파로 폐사된 법정사항일유적지 위치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다고 한다.

1918년 법정사는 고지천 건너에 위치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터>에 있었다. 이곳에는 현재 집터 흔적이 확실하게 남아있으며, 근처에 식수로 활용 가능한 샘도 존재해 이곳이 1918년 법정사 터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도순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법정사 터라 하고 확신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에 발간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 법정사 터를 1918년도 지형지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고지천 건너에 있는 현재의 법정사가 1918년 법정사와 일치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 하천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1918년 지형도에 누락된 것은 이 지도의 신빙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순천이 지형도에 나와 있으면, 고지천도 함께 당연히 표시돼야 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1917년 이후 해당 지역에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계곡이 생성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동 보고서, 83쪽)는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1918년 지형도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에는 법정동(하원동 1848번지)에서 하천을 건너지 않고, 직접 법정사와 추이 재배장(표고버섯, 초기낭밭)으로 갔던 길(점선)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¹⁵⁾

『도순마을지』의 주민들 주장은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법정이내’ 동쪽에 자리한다 말한다. 반면,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

14) 좌표 ‘법정이내’ 서쪽 33° 18'35.54"N//126° 28'27.80"E.

15) 도순마을회 편, 『도순마을지』, 제일출판인쇄, 2021, p.139.

본계획』은

도순천이 해당 지도에서는 표기되지 않고, 계곡의 하부에 계곡선으로 추정되는 선이 확인되어 1917년 이후 해당 지역에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계곡이 생성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⁶⁾

고 한다. 1917년 이후 큰 하천이 생성 확장됐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가 법정사 항일유적지의 중심 사역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이다.

1)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와 유구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곳은 모두 세 곳이다.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와 ‘법정이내’ 동쪽 법정사 잔존 유구지 및 기도터로, 이중 잔존 유구지에는 기단, 건물 외벽, 부속 건물로 구성되었고, 30cm~50cm 내외의 현무암으로 쌓았으며, 건물지 면적장벽은 10m라 한다.¹⁷⁾ 또한, 2015년 정비하기 전 샴터는 함석 철판으로 덮여 있어 물을 보호하고 있고, 맞은편에 기도터가 근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¹⁸⁾

이와 관련 『도순마을지』를 보면, 주민들은 법정사 항일유적지를 ‘법정이내’ 동쪽으로 증언하고 있지만, 마을지 집필진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위치를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 위치라 한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2019, p.83.

17)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101.

18)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104.

법정사 내 사건 등을 고려하여 운집 인원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법정사의 경우 항일운동 출발 당시 34인이 운집하였으며, 정례예불에도 30인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대웅전의 규모는 최소 10인 이상이 좌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당건물의 내부 공간과는 별개로 옥외 공간 등 전체 사역은 최소 30인 이상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사(나그네가 머무는 곳)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 2개동 이상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⁹⁾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해당 건물지를 사찰의 중심 건물로 추정하였을 경우 인법당 형태의 건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간은 예불 공간, 우측은 요사 공간, 좌측은 공양간 등으로 구성되고 연결한 부속시설로 창고로 판단된다. 다만,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었을 경우 예불 공간에 2~3명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마당 앞에 수용해야 한다. 앞선 판결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공간에서 정례예불 약 30인, 항일운동 거사 시작 약 40인이 운집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또한, 주변에 100년 이상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므로 마당 공간이 넓게 조성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건물지의 경우 사찰의 중심 건물로 활용되기보다는 요사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찰에서 경작하던 경작지 관리용 건축물의 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⁰⁾

이어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 만(卍)자로 표기된 지역과 관련해 자연재해로 인한 지형변동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정이내’ 서쪽 위에 있는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를 1918년 항일운동이 봉기한 법정사의 중심 사역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게다가 만(卍)자로 표기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길에 있는 세

19)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81.

20)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83.

채의 건물에 주목하고는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관련된 건물로 본다.

1917년도 일제강점기 지형 지적도에는 법정사 중심 사역 외에도 총 3개의 건물이 표기되어 있다. 해당 건물의 경우 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법정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¹⁾

법정사 항일유적지에서 서쪽 ‘너른도’ 화전민 중심 주거지로 이어지는 중간지역에 흩어져 있던 화전민 집터, 그리고 법정사 항일유적지에서 동쪽으로 ‘왕하리’ 화전민 터로 이어지는 중간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화전민 집터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항일운동 참여자 수 및 예불 참가자 인원을 염두에 둔 결과 ‘1918년 조선 오만분일 지형도’ 제주지형도의 화전민 집터를 묘사체 또는, 숙소로 보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사 건물 수를 많게 잡으려는 무리한 설정으로 사료 된다.²²⁾

필자는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가 ‘법정이내’ 동쪽에 위치한다고 본다. 그 근거로 다음에 대해 제시한다.

첫째, 지역민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지 위치를 ‘법정이내’ 동쪽을 증언하고 있고, 유구도 ‘법정이내’ 동쪽에 있다는 것.

둘째,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백인화보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1948년 항공사진 건물로 보이고, 현장을 방문한 후손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는 것.

셋째,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

21)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84.

22)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차장에 있던 화전민 집터는 주차장 부지 개발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동쪽 숲 안에 있던 옛 화전민 집터에는 무너진 돌담이 남아있으며 흙질을 한 집이라 돌을 쌓아 올렸던 자리는 흙이 내려앉아 작은 둔덕이 만들어져 있다. 길이 6.8mx4m, 좌표33° 18'30.42"N//126° 28' 23.01"E.

넷째, 법정사 항일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화전민들 고향이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과 후손의 증언.

다섯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구가 법정사 항일유적지에서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로 옮겨졌다는 기록과 얘기가 있다는 점.

이상에 근거해 ‘법정이내’ 동쪽에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위치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에 비치는 증언

첫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는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 증언이 있는데, 방진주는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법정이내’ 동쪽이라 증언한다.

다만 유족 방진주의 구술에 따라 ‘도순천을 건너 평탄한 지점’을 당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법정사 유구로 추정된 건물지가 확인되어 해당 지점을 법정사 위치로 선정하였다.²³⁾

법정사 원위치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족 방진주(방동화의子)의 구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곡 너머에 법정사가 있었다는 그의 진술에 의거하여 도순천 우측 평탄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현재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계곡에 인접하고 있는 건물지도 동시에 확인되어 해당 지역이 법정사 중심 사역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실태조사를 운봉택 향토사료원이 시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년 11월 문화재 지정 신청 서류가 접수되었다.²⁴⁾

23) 제주특별자치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2019, pp.81-82.

24)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90.

아울러, 『도순마을지』의 주민 증언도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하천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1918년 법정사는 고지천 건너에 위치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터’에 있었다. 이곳에는 샘터 흔적이 확실하게 남아있으며, 근처에 식수로 활용 가능한 샘도 존재해 이곳이 1918년 법정사 터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도순마을 사람들도 이곳을 법정사 터라고 확신한다.²⁵⁾

둘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은 발견된 수습유물(초석 5기)를 근거로 항일운동 발상지 위치를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로 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옛 법정사터는 좀더 계곡 쪽의 평평한 빈터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거기서 발굴된, 주춧돌로 보이는 돌 2개가 법정암 쪽으로 옮겨져 와 있다.”²⁶⁾

라고 하고 있다. 또한,

법정사 보살님이 살아계셨을 때 몇몇 유물을 옮겨갔다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있지만 이미 90년대의 기억이다.

녹음기라도 들고 다녔으면 그 음성을 다시 확인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²⁷⁾

라고 하여 기초석 유물이 옮겨졌을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오름나그네』가 발간된 해는 1995년이고 기초 조사사업을 한 시기는 1997년도이며,²⁸⁾ 블로그 구술 기록 역시 1990년대를 얘기하고 있어 이 부분은

25) 도순마을회 편, 『도순마을지』, 제일출판인쇄, 2021, p.139.

26) 김종철, 『오름나그네:2』, 높은오름, 1995, pp.263-264.

27) <http://anan2000.tistory.com/11803651>(블로그: 참 좋은 세상, by 산드릭. 2022년11월1일 자료 발췌)

앞으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2) 1948년 항공사진의 법정사 터와 목격자 증언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인해 법정사가 폐사된 후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건물이 실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되어왔지만, 1948년 항공사진에 집(사찰)이 보인다. 이에 법정사 항일유적지 관련 선대의 구술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채록하였고, 이들의 증언은 일치했다.

-. 미만화란 분이 법정사에서 불공을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스님이 마을 안길을 지날 때 잠시 본 게 전부였다.²⁹⁾

-. 거린사슴 뒤 ‘운뎃’³⁰⁾에 살다 부친이 법화사지 옆 밭으로 이주한 후 1930년에 태어나 4·3사건으로 하원동에 이주했다. 어린 시절 법화사 옆에 살 당시 월평동에 사는 백인화 보살이 지나가는 것을 법화사 인근에서 봤다.³¹⁾

-. 모친이 돈을 벌기 위해 외할머니인 백인화 보살을 고향에 홀로 두고 일본으로 넘어가 부친을 만나 결혼했고,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뒤인 1945년 8월 17일 화순항으로 귀국했다. 일본에서 번 돈을 고향 제주로 보내면 백인화 외할머니가 돈을 모아 밭을 사줬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외할머니가 사둔 땅을 갈며 살았고 여덟 살에서 4·3사건이 나는 10살까지 외할머니 백인화 보살을 따라 법정사로 갔다. 법정사로 갈 때는 예물로 쌀 등을 지고 올랐는데 홀로 예불

28) 제주특별자치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2019, p108.

29) 강상홍 구술. 강상홍은 상산 방목에 오랜 시간을 보낸 전 목장 조합장.

30) 중문동 산 32번지 한라산 둘레길 서측 대나무가 있는 주변으로 진 씨, 양 씨, 고 씨 등이 들어와 살던 곳이다. 진 씨 집안은 하원동으로, 양 씨 집안은 회수동으로 이주했으며, 고 씨 집안은 월평동으로 이주했다.(진원병, 양중호 등, 2021년 9월 5일 구술)

31) 진원병.(2021년 11월 9일 구술)



<사진 1> 증언에 따른 1945-1948년도 법정사지
초가 사찰 구조

을 드러야 하는 백인화 보살은 어린 손녀가 심심할까 예불 시에는 종종 ‘법정이내’ 서남쪽 목장지에 위치한 양유서 집에 맡기고 예불을 드리기도 했기에 이분과 친하게 지냈다. 법정사에 따라간 것은 외할머니 백인화 보살이 아끼는 면도 있었고 예불이

끝나면 나오는 쌀밥도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예불을 드리던 곳은 ‘법정이내’ 동쪽에 있는 터로 다닐 때는 냇가 서쪽으로는 집이나 절이 없었다.

종종 법당에도 들어갔기에 법당의 내부도 기억난다. 법당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8살~10살까지 봤던 절의 구조는 지붕은 새(띠)로 덮어 줘 줄로 서리에 연결한 초가집이다. 초가 세 칸 법당 내부도 새(띠)를 깔았으며, 정면으로 부처님을 모셨고, 가운데는 불공을 드리는 장소, 서쪽은 부엌으로 술 3개가, 동쪽으로는 별다른 방 없이 예불 공간과 하나로 연결되어 예불 시 가지고 간 간단한 물건 등을 놓았다. 회수동 분들이 함께 있었으며 마시는 물을 길어 오라기에 사찰 옆 냇가로 가 물을 길어 왔다. 빨래용 물은 절터 아래 부근 냇가 물을 이용했다. 당시 냇가 서쪽으로는 절이나 집은 없었다.

4·3사건이 나서 법정사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월평 바닷가 ‘짐꾸내’³²⁾에서 용왕제 기도를 하며 지내다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불에 탄 법정사는 나이도 있고 해 새로이 짓지 못했다.³³⁾

32) 서귀포시 월평동 725-2 남쪽 바닷가. 지역에선 ‘짐꾸내’로도 부르며 기도터가 인근에 남아 있다.

33) 백인화 외손녀 강인호.(2021년 10월 9일, 2021년 10월 29일, 2022년 4월 22일 구술, 2022년 6월 25일 법정사 항일유적지 동행)

－. 해방 이전 하원동, 회수동, 월평동 분들이 법정사에 다녔다. 또한, 4·3 시기 이전 고사리가 많던 ‘족은도도름’³⁴⁾ 주변으로 갈 때면 법정사에 들려 점심으로 가지고 간 밥을 먹었고 냇가 서쪽은 당시 집이나 사찰이 없었다.³⁵⁾

위 증언을 보면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해방 뒤까지 사찰 기능을 하고 있었고, 4·3사건으로 인해 화마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할 단서 중 하나가 잔존 유구에 있는 ‘무쇠술’이다.

4·3시기 군경토벌대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민보단(民保團)과 함께 토벌에 나서, 종종 쇠망치로 피난지나 무장대 아지트를 파괴한 후 살아남은 이들이 더는 이용치 못하게 했다. 이때 망치로 술의 밑을 일부러 내리쳐 구멍을 내거나 술의 가장자리를 파손했다. 산속 피난지에서 발견되는 훼손된 무쇠술 모양은 비슷하다.



〈사진 2〉 4·3시기 토벌대에 파괴된 무쇠술

34) 법정사 주차장 남쪽에 있는 낮은 오름이며 지역에선 ‘족은도도름’으로 불린다. ‘큰도도름’은 법정악을 이르며,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나기 전 주변에 법정사(항일유적지)가 들어서자 일본인 측량사가 자의적으로 지도에 법정악으로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는 1918년 12월 25일 인쇄되고 3일 뒤 발행됐다. 중문동, 회수동, 하원동, 도순동, 월평동, 대포동의 옛 어른들은 한결같이 ‘도도름’으로 부르는 오름으로 제주어로 돛(豚)을 뜻하는 돼지의 향상을 한 오름이라 한다.

35) 윤상순.(2021년 10월 9일 구술)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증언과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있는 훼손된 무쇠술에 근거하면,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4·3으로 인해 또 한 번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강인호는 백인화 보살이 일제강점기 봉려관과 함께 움직였고, 4·3 이후 만난 미만화(당시 재가불자)와의 관계도 증언한다.

① 백인화

-. 외할머니 백인화 보살은 체격이 크고 호탕한 분으로 안봉려관과 처음 만나게 된 배경이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봉려관과는 늘 함께 다녔으며 불심이 남다르게 강했다.

딸을 일본으로 보내고 할 일이 없던 백인화 외할머니는 늘 안봉려관과 함께 제주의 서부지역을 돌아다녔고, 사찰 터를 보러 다닐 때면 일본 순사가 따라다니며 불당이 만들어지는 대로 부셨다. 제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법정사 터가 아주 좋다하여 이곳에 봉려관이 절을 지으라 했다.³⁶⁾

봉려관(1865~1938)관 백인화(1870~1957)와는 5살 차이이다. 위 구술에 근거하면, 봉려관이 법정사 항일유적지를 좋은 터라 말한 점에서 창건시 백인화도 함께 있었을 개연성이 많다.



〈사진 3〉 법화사 백인화 보살 공덕비

36) 강인호.(2021년 10월 9일, 2022년 4월 22일 구술)

여러 지역에 사찰 창건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일제 경찰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점, 도량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터를 잡게 된 점을 고려하면, 1911년 이전부터 사찰 터를 찾아다니던 중 사찰령(寺刹令)³⁷⁾이 제정 반포됨에 따라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항일운동 여파로 1918년 전소된 후, 백인화(이주부)가 법정사를 재건한 사실을 1948년 항공사진에서도, 강인호의 증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 정확한 중창 연대는 불분명하다.

법정사가 4·3사건으로 인해 두 번째 참화를 겪었고, 백인화보살 생존 시 미만화가 수시로 찾아와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절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월평동 집을 드나든 사실이 있었다. 다음은 미만화 관련 증언이다.

② 미만화

-. 정확히 어느 동네 분인지 몰라도 법정사(항일유적지) 터를 이용케 해달라며 미만화란 보살이 외할머니 집으로 자주 왔으며 어떤 경우는 집에서 자고 갈 정도로 수양딸처럼 따랐다.³⁸⁾

-. 미만화 스님과 관련한 이야기는 들어 봤으나 도순마을이 아니라 서호동에 살았던 분으로 기억된다.³⁹⁾

37) 제령 제7호로 1911년 6월 3일 제정, 반포됨. 1911년 7월 8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본말사(本末寺) 체제를 갖추고, 지방관(地方官)의 허가 없이 종교집회를 못하게 했으며, 사찰 재산을 등록하게 하여 총독부 관할 체제에 둔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했다. 제2조에 전법, 포교, 집회는 허가받도록 명문화했는데, 한동민은 “이는 1907년 이래 의병전쟁 과정에서 사찰이 의병투쟁의 중요한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정치적 조치로서 사찰령이 제정됐다 한다.(한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박사학위논문, 2006, p.61.)

38) 강인호.(2021년 10월 9일 구술)

39) 강시중.(2021년 10월 29일 구술)

- 우리 집 뒤쪽에 살았으며 미만화가 직접 지은 냇가(‘법정이내’) 서쪽 위 절터에서 기도드린 적이 있다. 몇 번 길거리에서 보기도 했던 분으로, 아들이 결혼 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합격 기원 기도를 드릴 생각으로 다니던 사찰을 이용하려 했으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한 곳에서 불공을 드려야 한다기에 미만화 스님이 운영하는 절에 가 기도드렸다. 기원을 드린 위치는 냇가(‘법정이내’) 서쪽 언덕이다.⁴⁰⁾

- 봄철이면 산신 기도를 같이 가자며 이끈 동네 분 3~4명과 더불어 냇가 절터로 갔으며 당시 나이 50세 즈음이다. 1977년경 절에서 산신 기도 드릴 때 주변을 보니 냇가(‘법정이내’) 동쪽 아래선 해안마을 사람들이 무당(스님일 경우도 있음)을 모셔다 곳을 하는 소릴 들었다.

사찰의 미만화 스님은 머리는 깎고, 불교 경전을 잘 읽었으며 이러저러한 일에 똑똑한 분이셨다.⁴¹⁾

- 남편의 시동생이 2008년도에 사망하자 49재를 미만화 스님이 운영하는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 터에서 마쳤다. 미만화는 머리를 깎고, 장삼을 걸치고 염불을 해 줬는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10여 년 전 미만화 스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안다.⁴²⁾

- 남편의 고훈(孤魂)을 미만화 스님이 운영하는 절에 모시고 있어서 불공을 드리러 갔다. 냇가(‘법정이내’) 서쪽이다.⁴³⁾

- 하원수로의 물을 하원 목장에 공급할 당시 미만화 스님의 부탁이 있어 고무호스를 연결해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절로 이어 줬다. 물이 용료는 절에서 줬으며 당시 여자 신도들이 절에 기거했다.⁴⁴⁾

- 친정어머니 고일화가 해방 전부터 백인화 보살이 운영하던 법정사에 다

40) 오춘길.(2021년 10월 29일 구술)

41) 박기열.(2021년 12월 17일 구술)

42) 이만철, 송화진.(2021년 12월 18일 구술)

43) 오○○.

44) 오군찬.(2021년 11월 19일 구술)

니는 것을 봐 왔다. 4·3사건으로 법정사가 불에 타자 다른 절에 잠시 다니던 중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 절이 들어선 후 기도를 드리러 가게 됐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시집가는 해인 1964년(아들이 태어난 해)부터 미만화 스님이 운영하는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절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처음 다니기 시작한 1964년도는 초가집 한 채로, 백인화 보살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절을 지었고 도순동 송성우 스님이⁴⁵⁾ 잠시 몇 해 도와줬다.

현 사찰 터는 미만화 스님이 지은 도량이며 스님은 백인화 보살을 늘 어머니라 불렀다. 미만화 스님이 말하길 백인화 보살이 생전에 냇가(‘법정이내’) 동쪽 불탄 (법정사 항일유적지) 터가 덕(德)이 있는 자리며 백 년이 넘는 터라 했다. 미만화 스님 자신이 이 터에서 신의 기운을 빌어 모셔와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 터에 자리를 잡았다. 미만화 스님은 회수동 분으로 키가 작고 살이 없는 체질이었으나 아는 게 많고 날짜 택일 까지도 봐주곤 했다. 본명은 고미량이다.⁴⁶⁾

-. 모친께서 지은 절이다.⁴⁷⁾

이상의 구술에 근거하면, 1967년 항공사진에 보인 ‘법정이내’ 서쪽 집한 채는, 양방자의 아들이 출생하기 전 1964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다. 백인화가 별세한 1957년을 감안하면, 1954년 4·3사건으로 인한 한라산 금족령 해제⁴⁸⁾ 이후부터 1964년 사이에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백인화 관련 구술에선 해방 전 ‘법정이내’ 서쪽에 집이나 사찰 등의 건물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미만화 관련 구술은 미만화가 새로이 조성한 ‘법정이내’ 서쪽 위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와 관련된 증언들이다. 마을지 『월평마을』에는

45) 원만사에 거주했던 스님으로 이후 도순동에 사찰을 마련한다.

46) 양방자. 초창기 신도로 현재 사찰 신도이다.(2022년 2월 26일 구술)

47) 부○○.(2022년 2월 26일 구술)

48) 『제주신보』, 1954.11.28.일자, “殘匪年內完滅하라.”

“주로 가는 절은 하원 경에 있는 법정사와 산방산에 있는 산방굴이다.”⁴⁹⁾

라고 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된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법정이내’ 동쪽 잔존 유구 자리이고,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는 1954년에서 1964년 사이 미만화에 의해 최초 창건된 사찰로 법정사 항일유적지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2)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의 문제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를 현재의 지형도와 비교한 후,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 터를 1918년의 법정사 중심 사역으로 맞추려 한다. 이와 관련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 인용하고 있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법정사 항일운동유적지에 대한 재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1)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의 위치 부정확성

① ‘서산벌른내’는 서귀포시 솔오름 북쪽에서 다른 하천인 ‘동산벌른내’와 합수돼 하효동 ‘쇠소각’에 이르는 하천이어야 하나,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는 솔오름 북쪽에 하천이 합수되는 지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수망리 물영아리 오름을 민오름으로 표기했고, 도순동과 영남동 경계 하천인 ‘왕하리내’⁵⁰⁾ 하천도 보이질 않아 하천 미표시가 보인다.

③ 위미리 ‘감나굴’⁵¹⁾을 수악동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49) 월평마을회편, 『월평마을』, 나라인쇄, 1992, p.173.

50) 김관용, 이광옥 외.(2022년 2월 26일 구술) 지형도에 공산천으로 불리는 하천으로 왕하리 화전 터 동쪽 하천을 ‘왕하리내’ 라 부른다.

(2) 거리의 부정확성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법정사 위치와 관련해 1918년 지도와 현재 지형 지적도를 오버랩한 후 하천 지형의 생성을 주장한다.

해당 지도를 현재의 지형 지적도와 오버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 다만 도순천이 해당 지도에서는 표기되지 않고, 계곡의 하부에 계곡선으로 추정되는 선이 확인되어 1917년 이후 해당 지역에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계곡이 생성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⁵²⁾

법정사 항일유적지에서 법정악(큰도도리오름) 간 거리가 현 지형도에선 700m인데,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는 600m이다. 100m 차이가 있다. ‘법정이내’ 서쪽에 위치한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와 법정사 항일유적지 간 거리가 100m이고 보면 거리를 기준으로 위치를 비정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만약,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지도였다면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오버랩한 사진⁵³⁾에 법정사 항일유적지가 일치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또한, 현재 지형도에 법정사 항일유적지에서 북쪽에 위치한 추이 재배장⁵⁴⁾까지 거리가 직선 1.7km인데 반해,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51) 남원읍 위미리 4576번지 일원의 옛 화전 터로 한림에서 이주한 양씨 가족이 거주하다 해안에 위치한 위미리 마을로 이주했다.(양상국, 2021년 9월 11일 구술)

52) 제주특별자치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2019, p.83.

53)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책, p.86.

54) 좌표 33° 19'26.75"N//126° 28'43.32"E. 이곳 주변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으며 능선 기슭에 표고장, 집터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을 ‘소쿠니모르’라 부른다(강상홍, 2020년 4월 4일 구술). 한금순은 이곳 추이 재배

제주지형도에 1.1km로 잡히고 있어, 거리의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진 다. 이는 측량 시, 거리 기준이 아닌 등고선을 기준으로 삼고 집, 표고 장, 사찰, 오름 등의 명칭을 표기한 것에 오류의 원인이 있다. 등고선은 20m 기준으로 표기했으나 어떤 곳에선 10m로 표기하기도 하고, 같은 20m 등고선일지라도 어느 곳에선 등고선 간격이 짧거나 늘어나기도 해, 거리로 위치를 특정 하는 것은 부정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오류가 있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현재의 지형도를 오버랩하여 위치를 비정하거나, 계곡 지형 생성 또는, 확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고찰로서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2. 법정사 항일유적지의 규모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보이는 법정사 항일유적지의 집 두 채 중 한 채는 ‘법정이내’ 동쪽에 있다. 다른 한 채는 ‘법정이내’ 서쪽에 있으며,⁵⁵⁾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인법당이고, 지금도 기도 단이 남아있고, 기도 단 바로 밑은 평탄지다.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법정사 항일유적지 안에

장과 관련 “법정동(하원동 1848)에서 하천을 건너지 않고, 직접 법정사와 추이 재배장으로 갔던 길(점선)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도순마을회 편, 『도순마을지』, 2021, p.139. 재인용)고 주장한다. 필자의 의견은 한금순과 다르다. ‘너른도’를 거쳐 법정사 항일유적지로 갈 경우는 법정항일교(‘너른도’)와 ‘법정이내’를 반드시 건너야만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하원 목장을 거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로 갈 경우에는 ‘법정이내’를 반드시 건너야만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군찬의 구술에 의거하면, 표고장으로 가는 길 역시 ‘죽은도도름’ 사이 언덕 → 주차장 → 의열사 터 → 불칸오동이 → 소쿠니 추이 재배장으로 이어진다.(오군찬, 2021년 11월 19일 구술)

55)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보다 냇가 쪽으로 붙으면서 다시 아래 쪽에 위치.

있던 두 채의 집 각도를 보면, 냇가 동쪽, 서쪽에 있는 두 채의 집 방향이 현재 지형도 방향과 일치한다. 이처럼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법정이내’를 가운데 두고 냇가 동쪽과 서쪽을 오가며 조성되었고, ‘법정이내’ 서쪽의 건물터(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보다 냇가 쪽으로 붙으면서 다시 아래쪽에 위치)⁵⁶⁾는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일제 경찰에 의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정이내’ 동쪽 건물은 앞서 제기한 다수 증언에 근거하면 백인화가 훗날 중창했지만 4·3으로 인해 재차 화마를 입었고, 지금은 솔과 돌담 형태만 남은 잔존 유구 터가 된다.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 돌담과 관련한 부분이다.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은 제주 돌로 울담이 둘러져 있다. 이는 화전민들이 집 주변을 울담으로 쌓는 형태와 같고, 사찰의 경계를 알리는 울담으로 보인다.



〈사진 4〉 ‘구머홀’ 화전 집터와 외곽 울담과
‘새덕밭’ 화전 집터와 집터 뒤 울담

제주 화전지 특징 중 하나는 화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완만한 곡선 형태의 돌담을 집 외곽으로 쌓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곡식 재배나 화전지와 무관해 사찰 울담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법정사 항일유적지 규모는 울담 내부가 약 6,784m² (약 2,000평)의 넓은 공간이고, 냇가 서쪽 기도 단이 있는 터는 이보다 작은 약 678m²(약 200평)의 공간이 된다. 이 정도의 공간이면 강창규를

56) 좌표 33° 18'30.18"N//126° 28'26.62"E.

비롯해 당시 거주했던 승려들의 체력단련 공간 또는, 항일운동 출정 시 회합의 장소로 녀넉했을 것이다.⁵⁷⁾

기도 공간으로 보이는 ‘법정이내’ 서쪽 터는 지금도 초의 흔적이 남아 있고, 기도 터 넷가 방향을 보면 협소한 지형을 계단식 평탄지로 만들어 텃밭으로 활용했던 것 같다. 절에 딸린 작은 암자나 스님들의 요사(寮舍)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변에 돌을 쌓아 올렸던 집 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무와 대나무 등을 이용해 만든 요사채가 있던 시기에 측량사가 현장답사 후 지도에 표기했을 개연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두 채의 집이 ‘법정이내’를 중심으로 좌우에 한 채씩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18년 지도상에 집 방향을 보면 지형을 이용 집을 지었기에 각기 다른 각도의 사찰과 요사채로 구성된 것 같다.



57) 혜달, 『봉려관』, 조계종출판사, 2021, p.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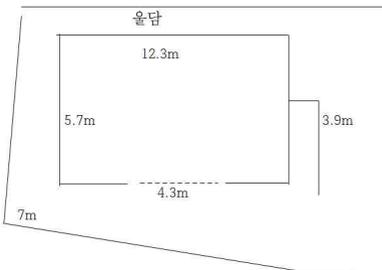
제주문화원연합회 편, 『중문동역사문화지』, 2019, pp.844-845. 지역민 강상홍은 법정사 항일유적지에서 ‘법정이내’ 따라 위쪽 760m지점에 위치한 ‘무수케’(33° 18' 53.30"N//126° 28'34.03"E)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이전 스님 등이 체력단련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당숙이 종조부로부터 이 케에서 사람들이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후 이야기했다는데, 이를 자신에게 들려주었다고 한다.(강상홍, 2022년 8월 2일 구술) ‘무수케’는 높이 3m 내외, 폭 10여m 이상 되는 매우 큰 바위 그늘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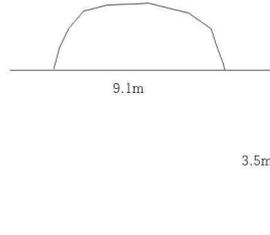
<사진 5> 법화사 항일유적지 주변과 유구



<사진 6> 법정사 항일유적지 및 묘사채 추정지



<그림 2> '법정이내' 동쪽
법정사 항일유적지 터



'법정이내' 서쪽
묘사채(기도터) 추정지

III. 법정사 항일운동과 화전민의 역할

앞서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에 화전민이 거주한 사실을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근거해 확인했다. 화전민들이 거주한 구체적 사실은 화전민 후손들의 가계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후손과 화전민 터와 관련한 지역민의 증언 및 현장 답사로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화전민들이 어느 지점에 살면서 항일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항일운동의 이동 경로가 어디인지 유추 가능하다.

1. 법정사 입지 선정에 대한 고찰

봉려관이 창건한 제주의 사찰 중 관음사와 법정사를 빼 나머지 사찰은 마을 주변과 가까이 만들어진 공통점이 있다. 반면, 관음사와 법정사는 근대 초기 사찰로 산간에 만들어졌다. 두 사찰이 산간에 들어서게 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물은 찾지 못했다. 이에 두 사찰 인근에 있던 화전민 터에 주목해 직접 조사한 결과로 살펴보았다.

봉려관이 창건, 중창한 사찰은 대략 아래와 같다.

<표 1> 봉려관 창건, 중창 사찰(출처 : 『봉려관』 발췌)

구분	사찰명	사찰 창건, 중창지 및 인근 화전지
창건	관음사	춘선도, 남열밭, 글채밭, 진폐기지슴, 능화동
창건	법정사	너른도, 구머흘, 왕하리, 코빼기, 서치모르(영남동)
중창	고관사	조천리 마을 안
중창	범화사	하원동 중산간
중창	불답사	삼양동 원당봉
창건	월성사	고산리 마을 안
창건	백련사	김녕리 인근
창건	소림사	아라동 산천단

창건	포교당	성내(제주시내)
창건	대각포교당	오오사카

1) 관음사의 입지 조건

<표 1>에 근거하면, 지역민들이 증언하는 관음사 인근 화전민 터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현장에는 화전민이 거주했던 무너진 건물터와 그릇 파편도 보인다.

(1) 춘선도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야영장에 살았던 분이며, 이름은 김춘선이다. 이곳과 관련해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는 한 채의 집 터가 표기되어 있다. 춘선이 이곳 상жат의 입구(道)에 살았다 하여 지명으로 불리는데, 현재는 관음사 탐방로 야영장을 만들며 사라졌다.⁵⁸⁾

(2) 남열밭

관음사야영장에서 지형도상 1.2km 남쪽에 위치하며, 720m 고지에 화전민이 사용했던 그릇 파편이 있다.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집 세 채가 표시돼 있고, 남쪽 언덕 410m 거리 방 씨 집안 묘소의 비문에 ‘삼소장남어전(三所場南於田)⁵⁹⁾이 보인다.

방성칠(房星七)⁶⁰⁾의 부친 묘로 시아버지 생존 시 벌초할 때면 며느리

58) 송영호.(2020년 1월 11일 구술)

59) 좌표 33° 21'24.34"N//126° 32'55.19"E.

60) 비문에 의거하면, 부친 방상규는 1820년에 태어났다. 1891년 제주에 들어온 둘째 아들 방성칠(본명 房鎭斗)이 난의 주동자가 되었고, 1898년 2월의 일이다. 방성칠 사망 후 부친 방상규가 사망하자 방성칠도 부친과 함께 ‘공초왓’과 ‘다래오름’ 사이에 묻혔다. 이후 방성칠의 아내도 사망하자 세미오름(삼의약)오름 남쪽 아래동 ‘좁은허리’ 550m 고지로 이장을 할 때 합장을 했다 2017년 화장한다. 민란이 실패한 후 방성칠은 두상에 칼을 맞아 숨졌다. 대정지역 고노(古老)들에게선 방 장군으로 불리웠다. (방영일, 2020년 9월 24일 구술); 『(실록)제주백년』에는 1894년에 방성칠이 제주로 들어온 것으로 기술한다.(강용삼 · 이경수 편저, 『(실록)제주백년』, 태광문화사, 1984, p.97.)

에게 ‘남열밭’이라 했다.⁶¹⁾ 남양 방 씨 한성우윤공과 제주 입도조(入島祖) 방상규 묘가 있어 2011년까지 별초하러 다니던 곳이다. 방성철이 살았다는 ‘글채밭’과 더불어 ‘알엉’⁶²⁾에서 동북쪽 2시 방향 500m 지점에 위치했던 화전민 터다. 입도조 방상규의 둘째 아들이 방성철(房星七)이며, 몇 해 전 화장된 방성철의 묘는 아라동 ‘좁은허리’⁶³⁾ 냇가 50m 곁에 있고, 상갓 북쪽 200m 지점에 위치한다.



<사진 7> 방칠성 가계도와 남어전(南於田) 비문 및 화장 전 방성철(鎭斗)부부 묘

(3) 글채밭

현 육군 특전사부대 동쪽 오등동 328-1번지 안에 방성철 일가가 살았다는 기록이 『(실록)제주백년』에 보인다.⁶⁴⁾ ‘글채밭’ 위치는 오등동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확인했다.⁶⁵⁾ ‘남열밭’을 묘소로 사용한 것이다.

(4) 진폐기지습

중심 좌표 33°25'08.44"N/126°32'42.76"E로 관음사야영장(춘선도) 서남쪽 작은 냇가(병문천)에서 서쪽 약 400m까지 이르는 지역이며, 과거

61) 전익년.(2020년 3월 12일 구술)

62) 국립공원 내 병문천에 소개한 폭포.

63) 제주골프장 서쪽 냇가 넘어 두 개의 비교적 큰 하천이 합수된 그 안쪽이며, 남쪽으로는 국립공원 일부를 포함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역에 해당한다.(양우중, 김태성, 2018년 12월 구술)

64) 강영삼 · 이경수 공편, 『(실록)제주백년』, 태광출판사, 1984, p.97.

65) 전정식.(2021년 5월 14일 구술)

에는 낮은 가시덤불, 잡풀 등이 드문드문 있어, 그래서 지명이 ‘진폐기 지슴’으로 불렸다.⁶⁶⁾ 현재 이곳은 허물어진 집터 두 곳과 마당으로 보이는 곳에 양하 균락이 있다.

(5) 능화동

오등동 산록도로 탐라교에서 남쪽 방향 한내(漢川)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1.7km 지점에 있는 옛 화전 터다.⁶⁷⁾



<사진 8> ‘능화동’ 화전민 돌화 유구와 오등동 ‘남열밭’ 화전민 터 그릇편

1905년 일본인 이치가와 상끼(市川三喜)와 미국인 앤더슨(Anderson)이 머물며 식물, 곤충을 채집했던 곳이며, 집 7~8채가 있다고 했으나⁶⁸⁾ 지금은 무너진 돌담, 그릇 파편, 돌화만 남아있다.

이외에도 누가 살았고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집터들이 관음사 동남쪽에 두 곳 더 있다.⁶⁹⁾

이처럼 관음사를 창건할 당시 화전민들이 그 주변에 거주했던 것은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는 보이지만, 이들이 관음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나 증언이 없다.

66) 송영호, 전정식, 전용형 등.(2020년 1월 11일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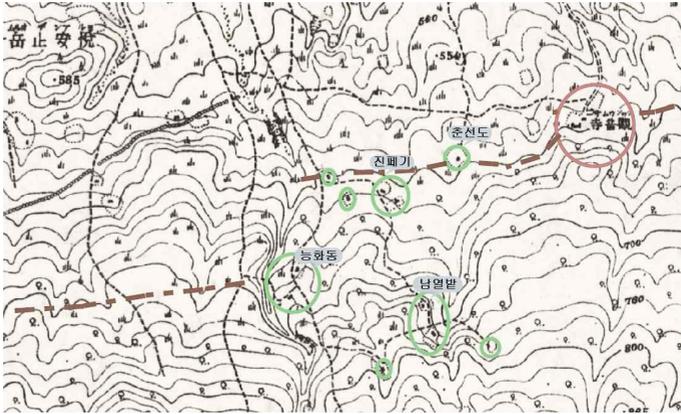
67) 좌표 33° 24'49.13"N//126° 32'17.98"E.

68) 우당도서관 편역, 『20세기 전반 제주도-제주도기행』, 정신인쇄사, 1997, p.130.

69) 좌표 33° 25'8.50"N//126° 34'5.64"E, 33° 24'53.22"N//126° 33'32.56"E.

2) 법정사 항일유적지 입지 조건

법정사 항일유적지를 기점으로 지형도상 서남쪽 1.16km를 중심으로 ‘너른도’, 동북쪽 360m-700m 거리 ‘구머홀’, 남동 방향으로는 ‘만태집터’, ‘왕하리’, 영남동으로는 ‘코빼기’와 ‘서치모르’가 있었다.



〈그림 3〉 관음사 주변 화전 :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 부분편집(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이들 화전민 터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보이는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연결된 이동로 상에 위치하며 일부 구간에는 지금도 옛길이 남아있다.⁷⁰⁾

(1) 너른도

너른도는 현 법정 항일교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던 화전 터로 대나무가 도로변에 남아있다. 지역을 넓혀보면, 제2 횡단 도로(1100도로) 입구에서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차장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되며, 지역민들은 법정 항일교 인근을 보통 ‘너른도’로 인식한다.⁷¹⁾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근거하면, 입구에 두 채, 법정 항일교 인근에

70) 2019년 12월 9일, 2020년 2월 3일, 2020년 12월 13일, 2021년 11월 15일 현장 조사 시, 화전민 터에서 깨진 그릇, 방아돌, 집터, 봉덕 확인.

71) 고웅철, 김용관 등.(2018년 8월 5일 구술)

일곱 채, 죽은도도리 오름 앞과 뒤로 두세 채 집이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집 한 채만 항공사진에서 확인된다. 이주로 인한 감소세로 추정된다. 마을지 『하원향토지』에는

“오래전부터 주거지였으나 4·3의 시대적 상황으로 거주자가 없다.”⁷²⁾

라고 전한다.

이 지역에는 해방 당시까지도 변○하, 변○재, 김○재, 김○기 형제와 김○만 집안이 있었고, 이들은 육도(산디=밭벼), 메밀, 감자, 콩을 재배하고 목축, 사냥을 했다.⁷³⁾

(2) 구머홀

구머홀은 법정사 항일유적지 동쪽으로 도순동 산 1번지 내 1365, 1360, 1361, 1358번지 일원에 살던 화전지로 옛 집터가 다섯 곳에서 확인된다.⁷⁴⁾ 변지와 집터 좌표가 불일치하지만 인근이고, 대나무, 통시 추정지, 그릇 파편 등이 남아있다.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는 집터 표시가 없는 반면, 현재 지적도엔 번지가 부여돼 있다. 지적도를 근거로 한다면 1913년⁷⁵⁾ 이후까지 거주하던 화전민들은 1918년 이전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민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 시 법정사와의 상호 왕래 여부도 불분명하다.

토지조사사업 시, 세금부과 부담으로 인해 등기 신고를 앓았거나, 문맹(文盲)으로 인해 혹은, 산간 지역 특성상 등기 신고 연락을 받지 못

72) 하원마을회 편, 『하원향토지』, 남도인쇄사, 1999, p.221.

73) 강상홍, 김수길.(2021년 1월 10일 구술) 김수길은 이곳 화전민 후손이다.

74) 좌표 33° 18'34.18"N//126° 28'49.17"E 및 그 아래쪽에 추가로 집터가 있다. 김기진, 강상홍, 김용관 등도 동일한 지명 구술을 한다.(2021년 11월 7일 구술)

75) 『매일신보』 1913년 9월 11일, “제주의 토지측량 사업을 실시한 해이다.”

해, 공고를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1911년의 산림령(山林令)⁷⁶⁾으로 인해 화전 생활을 못하는 상황 등에 내몰렸을 수도 있다. 이것이 화전민의 분노로 이어졌을 것이고, 항일운동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될 사안으로는 충분하다 본다. 1911년 법정사가 창건되고, ‘1918년 조선 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구머홀’에 집이 보이지 않은 것은 이주가 이뤄진 것을 의미하며, 다섯 채의 집이면 적어도 15명~20여 명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담⁷⁷⁾ 북쪽 수백 미터 위에 있었던 이 화전지 ‘억보터’란 곳에 대나무가 남아있다. ‘억보’는 별명으로 얼굴에 털이 많았던 분을 이른다.

(3) 왕하리

도순동 1353, 1356번지를 포함한 주변에 있던 화전 터로, 영남동 ‘서치모르’와 법정사 항일유적지 중간에 있었으며, 국립담 아래와 위로 화전 터가 남아있다. 이 화전지의 이름을 따 동쪽 궁상천의 상류 지역을 ‘왕하리내’라 한다. ‘왕하리내’ 좌우로 일반 번지가 부여된 것은 지적도에서 확인 가능하며, ‘왕하리내’ 동쪽 일반 번지(영남동 496)에 뚜렷한 집터가 없는 것은, 토지대장에 집터는 등기하지 않고 산전 밭만 등기한 것으로 추정된다.⁷⁸⁾ ‘왕하리’ 화전 터에는 집터, 봉덕, 돌방아, 대나무, 울담, 그릇 파편이 남아있다. 왕하리 화전 터 서쪽에 ‘만태집터’가 있다.

(4) 코빼기

76) 制令 第30號 「森林令」,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6월 20일, 타인의 삼림에 방화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삼림을 燒燬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함.(김정아, 「일제강점기(1916~1937)의 화전민 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산농 지도 정책」, 석사학위논문, 2020, p.7.)

77) 영림소담, 봉성리 명끝마을에서 교래리까지 이어지며, 산림 경계, 방화선, 목장담의 역할을 했다.(고학년, 김창석, 김인수 등. 2020년 5월 9일 구술)

78) 당시는 집터 주변 산전을 일구어 텃밭을 만들었다. 이들은 토지대장에 집과 산전 밭을 모두 올리기도 했고, 집만 올리기도 했고, 산전 밭만 올리기도 했다.

영남동 488번지 일원으로 4·3시기에 ‘어점이 군·경주둔소⁷⁹⁾가 있던 자리가 되며 경찰 100사령부 103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⁸⁰⁾ 이곳 동쪽 낮은 냇가 곁에 당시 주민들이 쓰던 항아리 파편이 있다.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 의거하면, 김 씨 가족이 거주했고,⁸¹⁾ 이곳 지역 능선이 마치 사람의 콧잔등처럼 보인다고 하여 ‘코빼기’라 불린다.

(5) 서치모르

영남동의 옛 지명이며, ‘세초지(細草地)’로도 불린다. ‘서치모르’는 인근 ‘판관⁸²⁾ 화전민이나 ‘코빼기’ 화전민, ‘왕하리’ 화전민 등, ‘서치모르’보다 북쪽에 자리 잡았던 화전민들이 모여들며 마을이 크게 형성된 곳으로, 4·3으로 인해 폐동되었고, 마을 위로는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했던 살레왓⁸³⁾이 숲 안에 남아있다.



‘너른도’ ‘구머홀’ 집터 ‘왕하리’ 돌방아 ‘코빼기’ 그릇편
 <사진 9> 화전 터와 유구

79) 한상봉, 『제주 4·3시기 군경주둔소』, 흥재, 2019, p.198.

80) 양서욱.(2020년 1월 12일 구술) 양서욱은 100 전투경찰 사령부 부대원이었다.

81) 4·3 50주년 학술, 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32.

82) ‘판관이뎡이’라 불리는 언덕 위로 영남동 195-199번지 일원 화전민 터에 대나무 및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집터 앞쪽으로 ‘살레왓’이 보인다. 번지수가 부여된 것으로 봐 세부측량 시까지 사람이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집터 표기가 없어 1918년 이전 ‘서치모르’ 등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83) 능선을 이용해 계단처럼 만든 밭. 부역에 그릇을 넣어두었던 제주말 ‘살레’에서 온 표현이며, 표준어는 다랭이밭이다.

2.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화전민

화전민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의 가계도, 항일운동 참가자 후손의 증언 및 공훈활동,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상의 화전민 집들과 법정사 항일유적지로 이어진 길 표시 등을 근거로 찾아냈다.

김광식은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에 대해 주동 세력, 동참 세력, 적극 가담과 단순 가담자로 나누면서 적극 가담자를

“촌락에서 적극 참여한 대상자(불교신도, 농민).”⁸⁴⁾

이라고 한다. 김광식이 언급한 농민이 화전민을 가리키는지 불명확하나 화전민이 이 지역에 거주한 것은 분명하다.

『정구용(鄭九鎔)판결문』의 판결 이유에 대해 검사의 양남구 신문조서에는

처음으로 9월 3일 새벽에 34명이 산을 내려가 먼저 도순리 윗쪽 상동(上洞)으로 가 그곳에서 박 처사(朴處士)가 지휘하는 4, 5명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집을 나가 아군(我軍)에 가입하라고 명령,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목숨이 없다고 위협하여 5명 정도를 동아리에 가입시켜 놓았다.⁸⁵⁾

라고 나온다.

84)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불교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2009, p48.

85) “初ノ未明ニ三十四名カ山ヲ下リ先ツ第一ニ道順里ノ上方上洞ニ參リ其處ニテ朴處士カ指揮ヤル四.五名宛數手ニ介レ民家ノ者ニ對シテ早リ家ツ出テ吾軍ニ加ハレト命シ若シ加ハラネハ命カナイト脅シテ五名程リ仲間ニ入レ夫レヨリ ….” (『정구용판결문』 국가기록원, 大正 12年刑控 261號(대정 12년 형공 261호), 적용법률 :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서 도순리에 해당하는 ‘위쪽상동(上方上洞)’을 찾아보면, 현 목장지 일원 주변으론 집들이 안 보이고 ‘왕하리’ 화전지만 보여, 도순리 윗쪽 상동이 현 ‘왕하리’를 중심으로 한 화전민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위 지형도에 나타나지 않는 화전민 터가 도순리 목장지 어느 곳엔가 있었다면 항일운동 출정 선발대가 목장 화전민지까지 내려왔다 다시 위쪽에 있는 영남동 ‘서치모르’로 올라가야 하는 등의 거리적 이동 문제를 갖기에 합리적이지도 않다.

즉, 선발대가 박 처사의 지휘를 받아 ‘왕하리’ 화전에서 5명 정도를 모집하고, 이후 영남동 ‘서치모르’로 가 구장을 협박해 민적부를 토대로 참가자 25명을 모집했다는 것은 도순동 상동 ‘왕하리’와 영남동 ‘코빼기’ 화전 터를 지나 ‘서치모르’에 당도함을 의미하며 ‘왕하리’ 화전 터와 인근에 살던 문남규, 문남은, 이종창, 김두삼 등이 항일운동에 가담한 게 된다.

항일운동 참가자 후손들이 증언하는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참가자의 거주지 위치, 그리고 이들이 평상시 이동했던 경로를 살펴보면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결코 외딴 지역에 동떨어진 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 왕하리 화전민

(1) 문남규(文南圭), 문남은(文南恩) 형제는 법정사 일운동에 참여했고, 항일운동 시 주소는 도순동이다. 문남은의 후손 문두현⁸⁶⁾은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서 선대 구술에 근거해 1800년대 중반 영남동 마을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저의 선친이 살아 있으면 96세인데 어점이악 앞에 왕하리 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점이악 남서쪽 될 겁니다. 하천변인데 거기에 거주를 하다가 저의 선친께서 여덟 살 때 판관이라는 마을로 이주를 하여오고, 영남(마을)로 와서 살다가 20여 년 후에 영남(마을)로 모아진 것입니다.⁸⁷⁾

86) 문두현은 한경면 판포리 전 통천사 승려.

‘왕하리’에서 ‘판관’ 화전지를 거쳐 영남동 ‘서치모르’로 이주한 것이다.

서호동 거주 문우현은 문두현의 동생으로 영남동 ‘서치모르’에 살았고, ‘왕하리’에서 이주했다고 한다.

부친(문일권)은 형 문두현과 자신을 서당에 보내 한문을 배우게 했으며 7살 때까지 서치모르에 거주했어요. 4·3 계엄령 직전 하산을 해 살 수 있었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반산비해(反山非海)라 하시며 해안으로 내려가자 해 모두 서호리로 가게 됐어요. 문남은 할아버지가 당시 상황을 일찍 꿰뚫어 보신 겁니다.⁸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가 언급한 영남동이 4·3사건으로 불타기 전 ‘서치모르’이며, 문남은 가족 모두가 서호리로 이주했기에 유일하게 피해를 면한 것이다.

문두현, 문우현의 부친 문일권 관련 자료가 『조선총독부관보·제주록』⁸⁹⁾에 있다. 문일권(1902생)의 부친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참가자 문남은이다. 문두현의 구술처럼 문씨 일가는 1918년 이후 어느 시기인가 ‘판관’ 화전 터로 이주한 후, ‘서치모르’로 내려왔다.

87) 4·3 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p.32.

88) 문우현.(2019년 11월 8일 구술) 증문 향토지에는 문남규의 손자가 도순동 문도희로 되어 있다. 문남은의 손자는 문두현, 문우현이다.(이성무, 『불란지야 불싸지라』, 유경문화, 1996, p.179.)

89) 『조선총독부관보·제주록』을 보면, 문일권은 한라산 임산물 처분록에 별목 허가를 얻었기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려 있고, 별목 장소는 1928년, 좌면 18임반 소반, 면적 300(정), 수종은 서리나무 41제 87본, 용도는 신탄, 반출은 1928.11.20.일까지라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도 허가 사항이 보이는 것으로 봐, 계속 숲을 구워 팔고 있었던 것 같다. 허가 당시 주소는 영남리고, 문남은의 아들 문일권이 여덟 살에 영남동으로 이주했으니, 문두현의 증언과 허가지 주소가 일치한다.(제주도 편역, 『조선총독부 관부 중·제주록』, 1995, p.627.)

이와 관련해 도순동 지역민은 문씨 조상이 살던 곳이 ‘왕하리내’ 국립담 서쪽 지역임을 특정하고, ‘선도채비밭’⁹⁰⁾에 문씨 일가가 거주했다 한다. ‘만태집터’라 불리며 조상은 문만태이다.⁹¹⁾ 문남규, 문남은 형제에게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다.

〈표 2〉 문남규, 문남은 애국지사 독립운동 공훈활동

성명	생몰년	훈격	징역	공훈활동
문남규 (文南圭)	1870-1931	건국훈장 애족장	3년	소요 및 보안법위반 (중문서 습격, 일본인 공격)
문남은 (文南恩)	1975-1953	건국훈장 애족장	1년	상동

(2) 국립담에 붙은 ‘왕하리’ 화전 중심지에는 목안(제주시)에서 이주한 전주 이 씨 ‘담배집하르방’⁹²⁾이 살았다. 현장에는 방아돌과 대나무, 집터 등이 있고, 지역민의 구술과 위치가 일치했다.⁹³⁾

이 화전 터에 살았던 도순동 이광옥의 가계도는, 본인 이광옥 - 부친 이덕효 - 조부 이종성이다. 이종성의 둘째 형이 이종창으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이며,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표 3〉 이종창 지사 애국지사 독립운동 공훈활동

성명	생몰년	훈격	징역	공훈활동
이종창 (李宗昌)	1880-1966	건국훈장 애족장	1년	소요 및 보안법위반 (중문 주재소 습격, 일본 상인 공격)

90) 도순동 1337, 1338번지 일원이며 토지등기부에 문씨 성을 가진 이가 소 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91) 김용관, 이광옥 등.(2022년 2월 26일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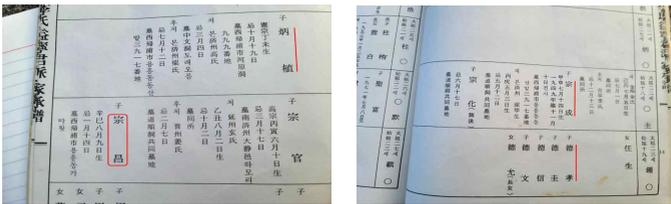
92) 도순동에 내려와 담배 집을 운영했다 해서 이렇게 불리었고, 성은 이 씨다.

93) 좌표 33° 18'11.00"N//126° 29'01.20"E.

조부가 거주했던 곳은 도순동 국립담과 이웃한 도순동 1354번지 일원이며, 이종창은 조부 집터에서 서쪽으로 약 150m 지점 도순동 1345번지 국립담 남쪽을 끼고 살았다. 지금은 집터와 봉덕 자리가 남아있다.⁹⁴⁾

2) 코빼기 화전민

(1) ‘왕하리내’ 동쪽에 있는 영남동 495번지는 목포형무소에서 옥사한 김종원의 작은아버지 김두삼(金斗三)의 출생지로 보인다.⁹⁵⁾ 이곳은 ‘왕하리’ 화전 터와 불과 400m 떨어져 있다.



<사진 10> 이종창 애국지사 가계도

<표 4> 이종창 지사 애국지사 독립운동 공훈활동

성명	생몰년	훈격	징역	공훈활동
김두삼 (金斗三)	1893-1919	건국훈장 애족장	1년	소요 및 보안법위반 (중문주재소 습격)

(2)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산록도로가 뚫리고 있는 위쪽 1km쯤에 코빼기 동네가 있었고, 김 씨 집 안 세 가구가 살다가 후에 영남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김창현 씨 집안이

94) 좌표 33° 18'12.75"N//126° 28'52.93"E.

95) 제주 4·3 제50주년 학술, 문화사업 추진위 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1998, p.36.

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⁹⁶⁾

용흥리 김인수의 가계도는 본인 - 부친 김을생 - 조부 김정행 - 증조부 김여수이다.⁹⁷⁾ ‘코빼기’ 화전 터로 들어와 살았는데, 조부 김정행은 화재로 집과 모든 것이 타버리자 증조부와 함께 이 터에 들어와 살았다. 부친도 ‘코빼기’ 화전 터에서 출생했고, 당시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할아버지도 함께 살았다.⁹⁸⁾ 부친계선 집이 두 채가 있었다고 하며, 옛 집터 돌담은 4·3시기 ‘어점이 군경 주둔소’⁹⁹⁾ 잣성⁹⁹⁾을 쌓으며 이용되었다 한다. 현재는 묘의 돌담으로 변해있다.¹⁰⁰⁾ 지금도 땅 소유주는 김씨 집안에 있다.

(3) 제주 4·3 증언 총서 제5권 『옛날 살아온 말 곧젠허민 기가 백히지』에 이상진 가족 이야기가 실려 있다.¹⁰¹⁾ 조부(이기순)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코빼기’ 화전민 터로 이주했고, 이주지인 영남동 494번지는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다. 이후 가족들은 영남동 ‘서치모르’로 내려왔고 그리고는 4·3사건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진이 1935년생이니 2세대를 더해보면 40년~50년 더 앞선 시기에 조부가 태어났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로 이주한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조부는 1890년대에 출생하여 494번지로 이주했고, 토지조사사업 전

96) 제주 4·3 제50주년 학술, 문화사업 추진위 편, 위의 책, pp.32-33.

97) ‘코빼기’ 화전민 집터 돌을 이용해서 4·3시기 군·경 주둔소가 만들어졌으며, 본인은 조상이 살았던 터인 어점이 주둔소에 경찰 협조원으로 주둔소 근무를 했다.

98) 김인수. (2020년 5월 9일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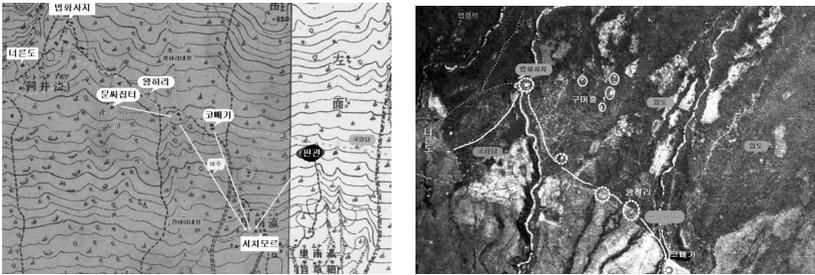
99)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들을 모아 만든 성담이며, 사람 키보다 높게 쌓아 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쌓은 성담을 이른다. 사람 키보다 낮은 목장담인 ‘잣담’과 구분된다.

100) 영남동 540번지 김공의 묘 서쪽으로는 수 미터의 주둔소 잣성(성담)이 남아 있다.

101) 제주4·3연구소 편, 『옛날 살아온 말 곧젠허민 기가 백히지』, 풍경, 2015, p.232.

‘코빼기’ 화전 터에 살다 토지측량 시기에 번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땅은 김씨 소유로 넘어갔다. 이상진 증언에 의거하면 조부(이기순)가 100여 두의 소를 키웠고 돈을 벌어 해안마을 지역에 땅을 사들여 자녀에게 수천 평씩 나눠주었다 한다. 이상진의 조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공훈명단에 없으며, 화전민이었던 것은 분명하다.¹⁰²⁾

이처럼 ‘구머홀’, ‘만태집터’, ‘왕하리’, ‘코빼기’, ‘서치모르’ 화전민들은 상호관계를 유지하며¹⁰³⁾ 통행했고, 이들이 통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길 흔적과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의 길(점선)이 일치한다.



〈사진 11〉 법정사지 주변 화전 터와 1948년 항공사진 부분 편집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종합하면, 관음사 서쪽으로는 ‘춘선도’에서 ‘진폐기지슴’, ‘능화동’, ‘남열밭’, ‘글채밭’이 있고, 동쪽으로는 화전민 터 두 곳이 더 있었다.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에는 ‘너른도’에서 ‘구머홀’과 ‘만태집터’, ‘왕하리’를

102) 김○순(이상진 아내. 2021년 11월 26일 구술)에 의하면, 부친은 이봉하이고 할아버지는 이기순이다.

103) 보통 화전민 터가 주변에 여럿 있는 경우, 한 화전민지에 방아돌을 만들어 놓게 되며, 이웃 화전민들은 방아돌이 있는 화전 터로 곡식을 가져와 도정을 하곤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산속 화전민들은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공유하였고, 그리하여 공동체가 형성된다. 방아돌이 발견된 곳은 ‘왕하리’며,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영남동 사이 중간에 위치한 곳이 ‘왕하리’ 화전터이다.

지나 ‘코빼기’, ‘서치모르’까지 화전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것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행동 대장이었던 강창규와 화전민 관련 기사이다.

“강창규는 어대로 도망하였는바 스년만에 작년(1922) 십이월 이십팔일 제주도 우상호리 화던동(右上孝里 火田洞)에¹⁰⁴에 잠복한 것을 동리 주재 쇼 횡산(橫山, 요코하마) 무장과 김(金)순사의 탐지흔 바되야 즉야 직시 테 포되었다더라.”¹⁰⁵)

강창규가 화전민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화전민과 스님들 간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IV. 나오는 말

1909년 최초 창건된 관음사, 그리고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에는 화전민들이 거주했었고, 결코 고립된 장소가 아니었다.

화전민들과의 교류는 항일운동발상지인 법정사 터를 결정하는 것에 이점으로 작용했고,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법정이내’ 동쪽에 있었다.

하지만,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를 근거로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두 채의 집이 보이는 것을 두고, 현재의 지형도에 오버랩하여 ‘법정이내’ 서쪽의 집을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일 가능성을 제기

104) 상효동 ‘남당모르(南塘旨)’ 또는, ‘사두석(蛇頭石)’, ‘기전모르’에 있던 화전민 지역으로 보인다. 상효동 고명록의 비문에 사두석, 우리들 골프장 유인김씨(孺人金氏) 비문에 남당모르가 보이며, 기전모르에선 돌방아가 발견된다.

좌표 33° 19'07.40"N/126° 34'46.44"E, 33° 19'32.09"N/126° 34'27.76"E.

105) 제주학연구원 편, 『매일신보』, 일신옵셋, 2019, p.217.

해 버렸다.

이처럼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의 것을 누락하고 있어 항일운동 발상지 설정에 혼란을 야기했다.

첫째, 등고선과 거리가 부정확하며, 법정사지 항일유적지 인근을 포함한 하천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의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이 지도의 문제점을 검증치 않은 것.

둘째,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관련해 화전민 지역을 알고 있는 지역민과 항일운동 참여자 후손의 증언을 채록하질 않았으며, 법정사 항일유적지 인근에 살았던 화전민들이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지 못한 것.

셋째, 법정사 항일유적지 인근에 있던 ‘너른도’, ‘구머홀’, ‘만태집터’와 ‘왕하리’, ‘코빼기’ 화전민 터 등을 친히 현장 답사하고 화전민들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것.

넷째, 법정사 항일유적지 유구가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로 옮겨졌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은 것.

더불어 복합적 사회현상 즉,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법정사 항일운동을 고찰하다 보니,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가 법정사 항일유적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법정사 항일유적지 주변 화전민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항일운동참가자가 거주했던 화전민 위치가 『정구용(鄭九鎔)판결문』에 보이는 도순동 ‘위쪽 상동’ 이고 영남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지역민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법정이내’의 동쪽에 위치했던 것은 확실하다.

또한,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에 보이는 만(田)자가 표시된 장소와 현재 법정사 항일유적지 위치를 비교해 보거나,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항일운동에 참여한 인접 화전민들의 공훈기록을 고려해 봐도, 법정사 항일유적지는 결코 고립된 곳도 아니었다.

법정사 신도들이 굳이 하천(고지천)을 건너 예불에 참여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점, 더욱이 장마철 우기에 하천이 범람할 경우, 그야말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경우, 법정사는 하천(고지천)을 건너지 않는 현재 법정사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⁰⁶⁾

1918년의 법정사와 현재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로 지정된 지점과 거리를 측정해 보면, 1918년 법정사는 현재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로 지정된 곳보다 북쪽으로 더 올라간 곳으로 고지천 서쪽 방향이며, 의열사보다 남쪽 지경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이 또한 ㄱ자 표시를 당시 법정사의 어느 지점에 했느냐에 따라 위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본고는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는 고지천 동쪽에 유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지정하였는데, 이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경도와 위도를 토대로 1918년 당시 법정사의 위치를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⁰⁷⁾

위의 내용에 나오듯이 불완전한 ‘1918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지형도를 근거로 현재 사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정사를 항일운동발상지라 한 후 “만(ㄱ)자 표시를 어느 지점에 했느냐에 따라 위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항일운동 발상지 관련 위치 비정과 관련,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금번 연구는 항일운동 발상지 위치 확정에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강인호의 구술에서 1918년 이후 봉려관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었고, 봉려관과 백인화와의 관계가 규명됨으로서 근대 제주불교에 있어서 제주 여성들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106) 도순동마을회 편, 『도순마을지』, 2021, p.139.

107) 한금순,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의 제주도 사찰」, 『제주도연구』 제55권, 2021, p.92.

참고문헌

- 4·3 50주년 학술, 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 김중철, 『오름나그네:2』, 높은오름, 1995.
- 오창명, 『일제강점기 제주지명 문화사전』, 한그루, 2020.
- 이은상, 『耽羅紀行 漢拏山』, 조선일보출판부, 1937.
- 제주4·3연구소 편, 『옛날 살아온 말 곧젠허민 기가 맥히지』, 풍경, 2015.
- 한상봉, 『제주 4·3시기 군경 주둔소』, 홍제, 2019.
- 혜 달, 『봉려관』, 조계종출판사, 2021.
- 강창화, 「濟州法華寺址의 考古學的研究」, 『제주도사연구』 9, 제주도사연구회, 2000.
-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불교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2009.
- 김정아, 「일제강점기(1916~1937)의 화전민 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산농지도 정책」,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원규, 「한말 항일의병에 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1984.
-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석사학위논문, 2006.
- _____,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의 제주도 사찰」, 『제주도연구』 제55권, 2021.
- 한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박사학위논문, 2006.

<자료>

- 『정구용판결문』, 대구복심법원, 2003.
- 도순마을회 편, 『도순마을지』, 제일출판인쇄, 2021.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 38권, 1970.
- 우당도서관 편역, 『20세기 전반 제주도 - 제주도기행』, 정신인쇄사, 1997.
- 이성무, 『불란지야 불짜지라』, 유경문화, 1996.
- 이형상, 『南宦博物(남환박물)』, 제주민속사자연박물관 역편, 2022.
- 제주4·3연구소 편, 『옛날 살아온 말 곧젠허민 기가 맥히지』, 풍경, 2015.
- 제주도 편역, 『조선총독부관보·제주록』, 1995.

제주특별자치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2019.
제주학연구센터 편, 『매일신보』, 일신웁셋, 2019.

<신문기사>

『매일신보』, 1913.9.11. 「제주의 토지측량 사업을 실시한 해이다.」

『제주신보』, 1954.11.28. 「殘匪年內完滅하라.」

<https://anan2000.tistory.com/11803651>. (참 좋은 세상 by산드룩)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 Sites of Beopjeong Temple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Han, Sang-bong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The fact that the location of the Beopjeong temple during the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in 1918 was adjacent to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lash and burn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was highlighted.

According to the records related to the anti-Japanese movement demonstrated in the Trial Decision of the case of Koo-yong, Jeong and the moving dotted lines around the temple shown on the Jeju map of the 1918 Joseon 1/50,000 topographical map, it was disclosed that some of the slash and burn farmers took part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as activists.

At the field check, it was confirmed that some of the access roads and the remains of the homes of the slash and burn farmers as shown on the topographic map remained.

Through interviewing the farmers' descendants and checking out the family trees of them, it was proved that some of the farmers served as the anti-Japan activists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t was revealed that eve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fter the temple was burned by the Japanese police, the temple was still functioning as a temple by the Bodhisattva, In-hwa, Baek. It was confirmed that the temple was closed

due to the Jeju4·3 uprising and the current Beopjeong temple was founded between 1954 and 1963.

Key words

beopjeong temple, shifting cultivation, anti-Japanese movement, a topographical map, Jungguyong judgment letter, hwajeonmin, In-hwa, Baek

논문투고일 : '22. 10. 31.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